

‘광주 기동’ 최경록 “승리 위해 개인플레이도 욕심”

광주FC 선수단 을사년 출사표



“K리거로 첫 발을 잘 뗐지만 만족하기엔 어려웠죠. 올해는 팀원들과 연계 플레이뿐만 아니라 공격 포인트까지 책임져 보겠습니다.”

지난해 처음 국내 무대에 입성했음에도 광주FC의 중원을 탄탄하게 구축하며 확실한 기량을 입증한 최경록이 새해에는 팀과 개인 모두를 위해 땀을 흘릴 것을 천명했다. 그는 좋은 과정과 결과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다짐이다.

최경록은 20일 구단을 통해 “괜찮은 첫 발이었지만 만족할 만한 시즌은 절대 아니었다”며 “점수를 매기자면 나는 40점이었다. 부상 없이 감독님의 신뢰 아래에서 40경기를 소화했던 것만 만족스럽다”고 지난 시즌을 평가했다.

그는 지난해 K리그1 34경기에 나서 3득점과 2도움을 올렸다.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에서는 여섯 경기에 모두 출전하며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경록은 “K리그가 왜 쉽지 않은 리그인지, 왜 아시아에서 손에 꼽히는 리그인지 느꼈다. 여러 팀들이 정말 위협적이었고 선수들의 개인 기량도 뛰어났다”면서도 “같은 언어로 소통하다 보니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랐다. 해외 경험을 많이 보여주자고 생각했는데 잘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2013년 아주대를 중퇴 후 독일로 떠난 그는 은사인 이정호 감독과는 약 12년 만에 재회하기도 했다. 이 감독은 직접 서울



지난해 유럽 무대에서 국내 복귀 건강 바탕 중원 핵심 자리매김 아시아 무대 6경기 모두 소화 올해는 공격포인트 발전 목표

로 찾아가 활용 방안을 설명하는 등 진심 어린 설득 작업으로 최경록 영입전의 승자가 된 바 있다.

최경록은 “축구적으로도 그렇지만 축구에 대한 태도나 준비하는 과정, 사람에 대한 예절 등 인간적으로도 너무 많이 배웠다. 모든 부분에서 성장했다”며 “정말 순수한 지도자다. 축구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있기에 혁신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다”고 존경심을 표했다.

주도권 축구로 불리는 광주FC 특유의 전술 아래에서 최경록은 웃음꽃을 피웠다.

결과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지만 과정에



광주FC 최경록이 태국 코사무이 마랄레이나 스포츠 리조트에서 진행 중인 전지훈련에 임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대해서는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자부심을 가졌다.

그는 “재밌었지만 우여곡절도 많았다. 개막 2연승 직후에 6연패도 하고, 조금씩 올라갔다”며 “과정이 좋았지만 결과가 따라오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감독님도 아시는 것 같고 더 좋은 과정으로 더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에 아쉬움이 남는 만큼 개인에 대한 평가 역시 냉정했다. 승리를 위해서는 수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공격에서 결과가 필요하데 스스로 공격포인트가 부족했다는 평가다.

최경록은 “더 잘할 수 있었고 더 좋은 모

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공격포인트를 더 올려서 팀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며 “공을 잡았을 때 연계 플레이도 중요하지만 한두 명을 제할 수 있는 능력도 활용해야 한다. 올해는 장점을 극대화해 팀을 돕겠다”고 다짐했다.

장점을 극대화한다면 공격포인트에서도 더 높은 수치를 기대할 수 있다. 올해 다섯 개의 공격포인트를 기록했지만 최경록의 플레이 스타일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도 충분히 가능할 전망이다.

그는 “올해는 공격포인트에 욕심을 내야 한다”면서도 “매 경기 목표가 팀의 승리이기 때문에 이타적인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이다. 다만 파괴적인 모

습이나 기회 창출에 대해서도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격포인트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건강은 필수적이다. 지난해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체력을 안배했지만 올해는 조금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경록은 “독일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부상이다. 더 많이 이기고 더 많은 공격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부상 없이 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몸 관리에 집중하겠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철저히 준비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셔틀콕 여제’ 안세영, 2주 연속 정상 등극

말레이시아 이어 인도 오픈 제패 결승서 초추윙 폰파위에 2-0 승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사진)이 말레이시아 오픈에 이어 인도 오픈까지 제패하며 을사년 새해를 2연패로 출발했다.

풍암초-광주제중-광주체고 출신 안세영은 19일 인도 뉴델리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열린 초추윙 폰파위(태국·12위)와 요넥스-선라이즈 인도 오픈 2025(슈퍼 750) 결승에서 2-0(21-12, 21-9)으로 완승을 거뒀다.

이로써 안세영은 지난 7-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페트로나스 말레이시아 오픈 2025(슈퍼 1000)에 이어 2주 연속 시상대 가운데에 올랐다. 특히 두 대회를 모두 실 세트 없이 전승 우

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안세영은 앞서 32강에서 치우 핀치안(대만·28위), 16강에서 라차녹 인타는(태국·14위), 8강에서 여자야민(싱가포르·13위), 준결승에서 그레고리아 마리스카 툰중(인도네시아·5위)을 모두 2-0으로 완파하며 순항했다.

결승에 나선 안세영은 초추윙 폰파위를 상대로도 압도적인 경기력을 과시했다. 안세영은 선제 실점했으나 내리 여섯 점을 가져오며 곧바로 6-1 역전을 이뤘고, 단 한차례도 동점을 허용하지 않으며 21-12로 첫 게임을 가져왔다.

이어 두 번째 게임에서는 초반에 1-1로 균형을 이뤘으나 곧바로 7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8-1로 크게 격차를 벌였고, 흐름을 손조롭게 유지하며 21-9로 우승 도전에 마침표를 찍었다.



한 편 안세영이 인도 오픈 정상에 오른 것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안세영은 지난해 대회에서는 여자야민을 상대로 8강 경기 도중 허벅지 통증으로 기권한 바 있다.

한규빈 기자

“LET’S SHINE GWANGJU”

“찬란한 영광, 팬들과 만들겠다” 광주FC, 올 캐치프레이즈 발표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가 을사년 새해를 맞아 구단의 정체성을 담은 새 캐치프레이즈를 발표했다.

광주FC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5년 캐치프레이즈 ‘LET’S SHINE GWANGJU’를 공개했다. 새 캐치프레이즈는 구단의 정체성인 빛을 표현하기 위해 제작됐다.

새 캐치프레이즈에는 유니폼부터 순간



순간의 메시지까지 광주FC의 모든 영광은 하나의 빛으로 이어진다는 의미와 광주FC의 빛나는 순간을 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고 K리그와 아시아 무대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겠다는 각오를 담았다.

광주FC는 새 캐치프레이즈를 각종 구단 제작물과 기념상품에 활용해 팬 친화적 마케팅을 전개할 계획으로 경기장 브랜딩과 SNS 이미지 등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는 “광주FC의 찬란한 영광을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담기 위해 이번 캐치프레이즈를 준비했다”며 “올해가 훗날 우리 팀과 팬들에게 빛나는 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규빈 기자

전남도청 에페 박소형, 올 첫 대회서 금빛 쥘리

전수인, 사브르 개인전 동메달

전남도청 펜싱팀이 올해 첫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적을 거뒀다.

전남도청 박소형(사진)은 지난 15일 전북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전국남녀종목별오픈펜싱선수권 겸 국가대표선발전 여자 에페 개인전 결승에서 이신희(강원도청)를 11-1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소형은 앞서 16강에서 같은 팀 소속인 김향은을 15-11로 물리친 뒤 8강서도



팀동료인 김태희를 13-8로 이겼고, 준결승에서 도쿄올림픽 단체전 은메달리스트였던 송세라(부산시청)와 팽팽한 접전을 벌인 끝에 13-12로 극적인 승리를 거뒀다.

다.

전남도청 전수인은 지난 18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같은 대회 사브르 여자 개인전 준결승전에서 김정미(안산시청)에게 6-15로 져 동메달에 만족했다. 전수인은 앞선 16강에서 양예솔(인천중구청)을 15-13으로, 8강에서 윤소연(대전시청)을 15-8로 연파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김용울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은 “우리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와 노력이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첫 시작이 너무도 좋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얻은 우리 선수들이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